

분재재배

최정훈

(분재연구가)

◎ 서론

분재란 대자연의 운치있는 아름다움을 몸 가까이 두어 수시로 그 아름다움에 젖고 즐기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창안된 조형 기술의 하나로서 같은 화분에 자연적인 풍취를 갖추어 식물을 심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자연적 풍경미를 느끼며 가지나 나무모양 등이 형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그 식물의 고유의 시대 감각이나 연대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분재라는 것은 나무를 학대하여 강제로 왜화 시키므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 밑에 나무에 올바르게 못한 조작을 가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리고 형태에만 치우쳐 자연적 풍경미의 조화가 취해지지 않으면 단지 화분에 심은 단순한 식물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것을 제대로 가꾸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생육습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적절한 관리와 끊임없는 애정을 쏟아야만 한다.

(1) 분재의 종류와 수형

분재는 관상하는 점에서 송백류와 목류로 나눌수 있고 잡목류를 잎이나 꽃 또는 열매 혹은 한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여러가지로 나눌수 있으며 나무 종류는 흑송 육송금송 가문비 잣나무 노간주 진백등의 장록수와 낙엽수인 낙엽송 잎을 감상하는 단풍나.

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너도밤나무 담쟁이넝쿨등과 꽃을 관상하는 매실 벚꽃 해당화 황매 장수매 등과 열매를 감상하는 석류 모과 배 애능금 등과 한수를 감상하는 느티나무 너도밤나무 등이 있으며 거의 모든 나무가 분재로 만들수 있다.

분재의 수형은

① 직간

한 줄기로 꽃꽂이 자란 좌 우로 조화있게 가지를 친 모양으로 웅장한 느낌을 준다.

② 사간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자란 생김새로 가지의 배치와 뿌리의 힘찬 모습이 요구되는 수형

③ 곡간

직간체 가운데서 줄기의 자연스러움 곡선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수형

④ 번간

위로 향한 생장이억제되어 줄기의 밑 부분이 마치 뱀이 몸을 감은 듯이 심하게 굴곡하여 낮은 수고를 가진 생김새(수형)

⑤ 문인목

문인화에 그려지는 소나무와 같이 하나의 가느다란 줄기가 약간 기울어지면서 운치있는 곡선을 그려나가는 수형

⑥ 현애

벼랑에 늘어져 자라나는 나무처럼 수관부가 분의 위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가꾼 수형

⑦ 취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줄기가 서지 못하



그림 1. 진백의 소형분재

고 땅에 닿을 정도로 굽어 누워버리는 수형

⑧ 쌍간

직간이나 곡간의 수형으로 두개의 줄기로 자란 수형

⑨ 삼간

세가지 줄기로 갈라져 자란 수형. 가지수에 따라 오간, 칠간이라고 부르며 홀수로 맞추는 것이 환영 받는다.

⑩ 포기자람

숲을 보는듯한 느낌이 들게 여러개의 줄기가 지표에서 갈라져 나간 수형

⑪ 뿌리이음

누운 뿌리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여러개의 줄기가 서 있는 수형

⑫ 모아심기

두 그루 이상의 나무를 모아 숲의 생김새를 묘사한것

⑬ 뿌리 솟음

뿌리가 노출되면서 솟아오른 생김새를 갖춘 수형

⑭ 석부작

돌에 얹어 심거나 그속에 심는 방법

(2) 수형 만들기

분재의 소재나무는 산취법, 높이떼기, 꺾꽂이, 포기나누기, 접붙이기, 씨뿌림,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어느 방법이나 쉽게 분에 심는 것이 아니라 소재나무의 생육상태가 좋은 때라야 하므로 산취나 꺾꽂이 등으로 얻

은 소재나무가 생육상태가 좋지 않을때나 뿌리나 줄기의 절단을 많이 하였을 때는 온실이나 뜰 한구석에 그늘을 만들어서 활착을 시켜 보완해서 올려야 한다. 좋은 나무를 너무 성급히 분에 올림으로써 가까운 소재를 한점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소재나무가 구해지면 이 나무를 어떠한 방향으로 키울 것인가 구상을 하여야 한다. 사간이나 번간이나 어느쪽 가지가 부족하니 어떻게 보완을 할것 이라는 등 머리속에 구상을 하면 그것을 종이 위에 올려 기입하여 두는 것이 좋다. 분에 올린 소재나무가 완전 활착이 되면 나무의 수형을 다듬는데 나무의 굵기에 따라 창호지로 감은 맞는 철사를 나무에 감거나 걸어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휘어 놓는다. 나무가 성장을 하므로 이 철사는 성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2~3개월에 한번씩은 다시 감아야 자국이 없나고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다. 철사걸이와 함께 눈따기 잎따기 가지치기 조각등의 수형 다듬기 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눈이 자라나 수형을 망쳐 버릴 뿐만아니라 바퀴살가지를 만들어 운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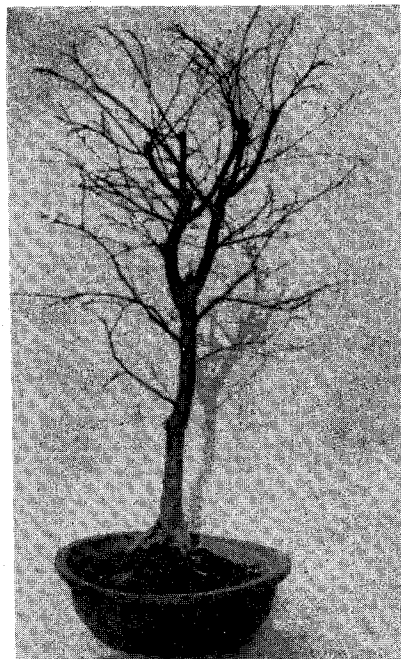


그림 2. 한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느티나무분재 (5년생 필자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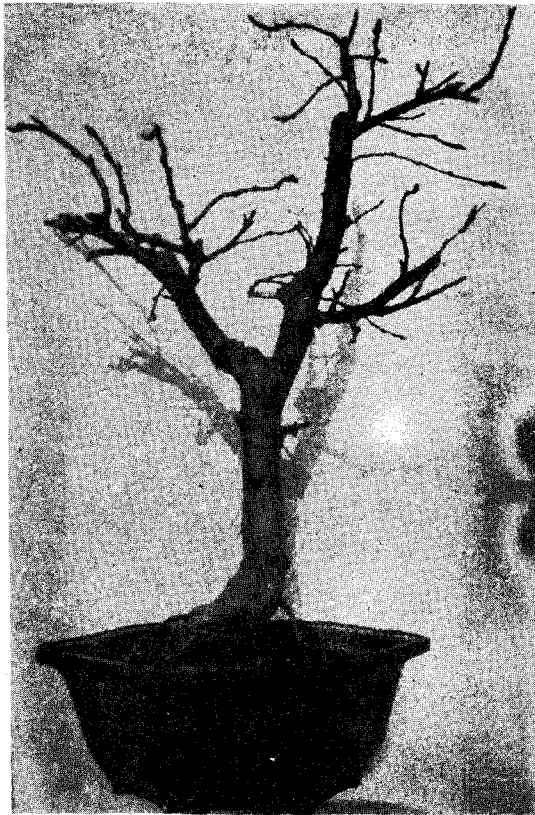


그림 3. 줄기의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후라밍고분재 (9년생 필자작)

해치므로 눈이 충분히 자란 5~6월경에 필요한 두께 혹은 세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로 부터 따버리는 동시에 남겨둘 순도 밑둥에서 흉만 남기고 윗 부분을 손으로 꺾어 따 버린다.

이것은 지나치게 자라나는 현상이 약화되며 마디사이가 짧아지는 동시에 결가지들 자게 해준다. 잎따기는 한해에 두해에 해당하는 가지를 치며 한층 더 섬세한 생김새를 가지게 하기위해서 6월경에 잎을 잎자루만 남겨두고 따버리는 방법으로 눈을 움직이게 하여 한층 더 섬세한 생김새를 낼뿐만 아니라 가을에 단풍도 아름답게 물든다는 이점이 있다. 분재의 수형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금씩 생각하지 말고 긴세월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3) 심조각과 사리간

심조각과 사리간은 나무의 생김새가 고색

을 띠어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연한 경지를 이끌어들이고 긴세월을 풍설에 견디며 씩씩하게 살아온 인상을 주게하는 백골의 생김새를 나타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심조각은 자라고 있는 가지나 혹은 말라 죽은 수심을 백골 모양으로 조각하여 고목의 생김새를 내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말린 형태를 내야하며 심조각이 끝난후에 석회유황합제나 화장용분을 발라 송진이 스며나와 조각한 부분이 변색되는 것을 막고 더 고색을 지니게하며 사리간은 수피를 벗겨 고색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흑송, 목백일홍, 노간주, 오엽송, 진백 등의 나무에 행한다. 나무의 생육상태가 좋을때 행하여야 하며 나뭇때 행하여 나무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일상 관리

일상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수작업이다. 지나치게 습해도 안되고 지나치게 말라도 안된다. 따라서 분토표면이 항상 적당한 수분을 지니고 있도록 관수해 주어야 하고 쓰는 물은 그릇에 받아 하루동안 두어 기온과 비등한 온도가 된것을 주도록 하는



그림 4. 적송의 사간 분재 (산취후 3년 필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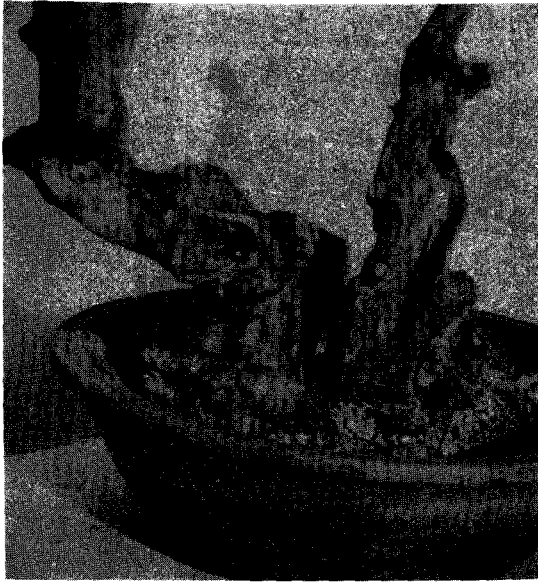


그림 5. 사리간과 조각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목백일홍 분재 (산취 2년 필자작)

것이 좋다. 또 진백등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자주 앞에 물을 끼얹어 주도록 하며 여름에는 아침 저녁 두번 봄 가을은 한번 정도 끼얹어준다. 겨울관리는 비닐안이나 온실속에 두어 추위를 직접 받게 하지 않으며 남부지방은 흙에 분만 묻어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난대지방이 원산인 식물은 추울때 비닐에 거적을 덮어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서울지방은 움집을 지어 이속에 거둬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습도도 알맞아 나무의 생리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

(5) 거름의 종류

식물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거름을 주어야 한다. 자유로이 필요할만한 양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올바른 생리작용을 영위 할 수 있게끔 그식물에 필요한 양의 영양분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물 주기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이 씻겨나가기때문에 보충을 하여 주어야 한다. 거름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가장 많이 필요한 요구량이 질소 인산 및 칼리의 세가지이며 철, 석화, 망간, 고토 등의 미량성분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것이 깻묵이며 물 거름으로 주는 방법과 덩어리거름으로 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또 칼운빛 어비 조개 거름 등이 있으며 가장 빠른효과는 하이프넥스와 과린산석회 등의 속효성 거름이며 골분은 깻묵과 같이 쓰면 좋다.



그림 6. 뿌리의자연스러움과 고목의생김새



그림 7. 진백의 현애소형분재